

이오플로우,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67억 달성...전년比 868% ↑

▶ 2022년 유럽 및 중국 수출로 매출 증가... 2023년 글로벌 시장 확대로 본격 매출 성장 기대

[2023-02-28]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KQ.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2022년 잠정 실적을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67억 788만 원을 기록해 전년도 매출액 6억 9327만 원 대비 86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해외 매출 성장세에 작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시노케어와의 합작사인 시노플로우에 대한 Pilot 생산설비 및 기술 서비스 매출과 유럽 파트너사 메나리니의 지속적인 구매주문에 따른 수출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메나리니향 유럽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보험등재 등 판매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해 2월 UAE 첫 수출을 시작한 중동 지역 매출도 올해 실적에 기여한다고 했다. 회사는 올해 보험등재에 어려움이 없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를 공략할 예정이고, 중동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성장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영업손실은 342억 7518만 원, 당기순손실은 300억 3028만 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및 외주용역비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향후 매출 증대에 따라 적자폭이 빠르게 축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 안현덕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라며, “올해 370만 개의 패치 생산능력을 갖춘 곤지암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생산에 있어서 품질 및 수율 향상과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올해 신제품 개발과 미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따라 세계로 웅비하는 이오플로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파치는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다. 2021년 국내 판매 개시 이후 당뇨인구가 많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현재 유럽 지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판매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도 완료했으며, 중국은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 자료 문의: 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